

중국 송대 주거건축의 실내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House Interior Design in the Song Dynasty

주 저 자 : 윤영철 (Yoon, Young Chul)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yun7378@naver.com

공 동 저 자 : 백소훈 (Baek, So Hoon)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According to YiangZaoFaShi (營造法式) and several painting works, the houses in the Song Dynasty, based on the lifting beam wood structure, have developed interior decoration system which composed of sealing, floor, wall, partition, door and window. A Luxury house adopted DianTang (殿堂) structure put its interior design concept on the decoration feature of Dougong 斗拱 and sealing, but a common house adopted TingTang (廳堂) structure stressed on revealing the structural aesthetics of its beam structure without sealing. The lattice doors and windows in the front made a richly ornamented inner facade, and the partitions and screens attache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on them satisfied owner's elegant taste. And Various furnitures like bed, couch, chair, desk, screen and cabinet were placed in each hall and room.

Keyword

The Song Dynasty(중국의 송나라), House(주거건축), Interior Design(실내설계)

요약

영조법식(營造法式)와 다른 여러 그림 작품들에 의하면, 송나라 시대의 집들은 목재 들어올림 수평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장, 바닥, 벽, 파티션, 문 그리고 창문으로 구성된 인테리어 장식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고급 집들은 높고 크게 지은 화려(華麗)한 전당(殿堂) 구조를 채택하여 두공(斗拱)과 천장의 장식적 요소들을 인테리어 디자인 개념으로 두었으며, 반면 일반 집들은 TingTang 구조를 채택하여 천장이 없는 수평구조의 구조적 미를 들어내는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전면의 격자무늬의 문과 창문은 풍부한 장식된 내부 입면을 만들었고, 칸막이와 병풍에는 붓글씨(서예)나 그림 작품등이 부착되어 있어 소유주의 우아한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침대, 침상, 의자, 책상, 병풍 그리고 장롱과 같은 다양한 가구들은 각 복도와 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실내설계 요소

- 2-1. 천정
- 2-2. 문창
- 2-3. 벽체

2-4. 칸막이

2-5. 가구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중국 전통건축에 대해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배치나 구조에 편중되어 있고 실내설계에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목조건축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구조체를 만드는 것을 대목작(大木作)이라하고 장식물을 만드는 것을 소목작(小木作)이라 하는데, 대목작은 체계적인 설계 및 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소목작은 개별적인 공예에 가깝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하지만 송나라의 건축 주무부서인 공부(工部)에서 출간한 『영조법식(營造法式)』¹⁾을 현대 실내건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시 실내장식이 상당히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 논문은 『영조법식』을 중심으로 건축과 회화를 분석하여 송대 주거건축의 실내설계 원리와 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거건축은 단순히 주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궁전 건축 가운데서 주거용도의 건축도 포함한다.

또한 『영조법식』은 제작기법 위주로 설명되어 있어 실내설계 원리를 분석하기에 부족하므로 비록 시기상으로는 훨씬 뒤에 출간되었으나 문인주택의 실내설계 이론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원야(園冶)』²⁾ 와 『한정우기(閑情偶寄)』³⁾ 등의 명청대 서적들과의 비교를 통해 송대 주거건축의 실내설계 원리와 시대적 기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실내설계 요소

『영조법식』의 실내장식 체계는 대량식 구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 전통건축의 목구조는 크게 강남지역의 천두(穿斗)식 구조와 강북지역의 대량(抬梁)식 구조로 나뉘는데, 천두식 구조는 여러 개의 얇은 수평부재들로 기둥 몸통을 관통하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반면 대량식 구조는 기둥 머리에 두껍고 무거운 보를 올리는 방식이다. 대량식이 천두식에 비해 보다 넓은 스패의 무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건축의 대형화에 유리하다. 현존하는 한국의 전통 목조건축들은 대부분 대량식 구조에 속한다.

대량식 목조건축을 목수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면 크게 기단, 기둥, 공포, 지붕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내부에서 바라보면 종방향 보와 횡방향 보 사이의 천정공간, 두개의 수직 기둥과 그 위

1) 송나라 공부의 시랑 이계(李誠)가 황명을 받아 저술한 건축서적으로 1103년에 정식으로 간행되었다. 총34권으로 건축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규범을 그림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명나라 계성(計成)이 저술한 정원설계 이론서적.

3) 청나라 이어(李漁)가 저술한 일상생활을 즐기는 방식을 설명한 책. '거실부(居室部)'에서 주택 실내설계를 설명하고 있다.

에 놓인 수평 보 사이의 벽체공간, 벽체로 둘러싸인 넓은 실내공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숙제로 남게 된다. 특히 주거건축은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의 실내마감이 요구된다. 송대 주거건축의 실내설계를 천정, 벽체, 문창, 칸막이, 가구 등의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자. 바닥은 통상 사각형 전들을 깔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2-1. 천정

송대 목조 주거건축에서 천정 가림판은 보 사이에 얇은 나무막대로 격자모양의 틀을 짜고 각 격자를 마다 사각형 목판들을 끼워 넣어 만든다. 틀과 목판에 조각이나 단청을 하여 장식을 더하면 '평기(平棊)'라 하고, 장식이 없으면 '평암(平闇)'이라 한다. 이들은 한국 전통건축의 '반자천정'에 해당한다. 평기와 평암은 건축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그림1).



<그림 1> 평암과 평기 (좌: 불광사 동대전(당)
우: 자감성 태화문(청))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천정 가림판의 설치 여부를 살펴보자. 『영조법식』에 의하면 목구조 종단면에서 외벽 기둥이 낮고 실내 기둥이 높은 경우를 '청당(廳堂)'식 구조라 하고, 외벽 기둥과 실내 기둥의 높이가 같은 경우를 '전당(殿堂)'식 구조라 하는데, 청당식 구조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기나 평암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기술적으로 실내기둥이 평기나 평암을 뚫고 들어가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심미적으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피한다. 이렇게 천정에 가림판을 설치하지 않아 실내에서 위를 바라보았을 때 보와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절상명조(切上明造)' 기법이라 하는데, 절상명조 기법에서는 드러나 보이는 보를 유려한 곡선의 '월량(月梁)'으로 가공하거나 상하 보의 사이에 공포나 조각한 대공을 더하여 멋을 낸다. 지붕아래의 유려한 곡선과 화려한 조각으로 멋진 부재들은 청당식 건축의 실내장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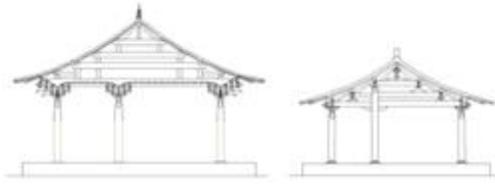


그림2 전당식 구조와 청당식 구조의 단면도

궁전이나 사찰의 정전에는 평기 중앙에 ‘조정(藻井)’을 설치하기도 한다. 조정은 한국 전통건축의 ‘보개천장’에 해당하는데 어좌나 불단의 위에 위치하며 우물처럼 움푹 들어가게 만들고 안에는 작은 공포나 용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다. 송대에 신분에 따른 주택 규모의 제한을 명시한 『영선령(營繕令)』에는 “왕공이하의 집에는 여러 층의 공포나 조정을 설치해서는 안된다(王公以下, 舍屋不得施重栱藻井)”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은 주거건축 가운데서 오직 황제의 궁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보편적인 주거건축의 천정형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강성 영파 보국사(保國寺) 대전에는 『영조법식』에 기술된 ‘두팔조정(斗八藻井)’의 실례가 남아있는데 이를 자금성 태화전의 청대 조정과 비교해 보면 장식미 보다 목부재의 구조미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용도의 측면에서 천정 가림판의 설치 유무를 살펴보자. 천정 가림판은 실내천정면을 장식하고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며 실내보온에 도움을 준다. 첫째, 보의 스패인 큰 경우 보를 곡선으로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정 가림판으로 가린다. 송대 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청당식 구조에서는 사용되는 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보 자체를 곡선으로 가공하기가 용이하다. 곡선으로 가공된 월량의 우미함은 청당건축의 중요한 실내장식 요소가 된다. 반면에 궁전의 중요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당식 구조는 사용되는 보의 길이가 매우 길고 그에 상응하여 단면치수 또한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려보면 지나치게 위압감을 주고 곡선으로 가공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보의 하단에 평기나 평암을 설치하여 보를 가려주는 것이 좋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천정 가림판을 ‘천화판(天花板)’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옛 사람들이 천정 가림판의 장식기능을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조정 (좌: 자금성 태화전(청), 우: 영파 보국사 대전(송))

둘째, 천정 가림판은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중국 강북지역은 기후와 지질 특성상 먼지가 많은데 이들이 보위에 쌓여 있다가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면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붕을 보면 서까래 위에 개판을 깔고 그 위에 보트를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기와를 까는데, 개판 틈새로 보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천정 가림판은 바로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청대 강남지역 사람들은 천정가림판을 ‘양진(仰塵)’⁵⁾ 즉 먼지를 막아주는 것이라 불렀으며, 천정 가림판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서까래 위의 널판을 주의 깊게 가공하고 밀의 침실에는 천정덮개가 달린 침상을 설치하였다.

셋째, 천정 가림판은 단열층 역할을 하고 실내 공기의 대류현상을 막아 열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송대 주거건축은 좌식에서 입식으로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침실 이외의 실내공간에서는 직접 무연탄 등을 태워 난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천정가림판은 열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잇점에도 불구하고 천정 가림판이 송대 주거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청당식 구조 특성상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능면에서 천정 가림판이 있으면 여름에 실내가 지나치게 덥고 답답하기 때문이다. 천정 가림판은 천정고가 충분히 높은 전당식 구조에서 주로 사용된다.

2-2. 문창

두개의 기둥과 하나의 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는 벽체를 쌓거나 문창을 설치한다. 이 가운데 문창은 출입과 채광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보았을 때 입면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명)계성(計成) 『원야(園冶)』 권1, 장절(裝折)편에 “양진은 곧 옛 천화판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고문헌 중에 ‘승진(承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는 보 사이에 천을 걸쳐 먼지를 막는 것을 뜻한다.

4) 劉雨婷, 中國歷代典章制度, 下冊, 同濟大學出版社, 北京, 2010. 55쪽

송대 주거건축에서 문은 주로 건축 정면의 가운데에 배치되어 건축의 정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 평면을 보면 마루, 방, 부엌, 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송대 주거건축은 각기 다른 용도의 건축을 별도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주랑(走廊)을 설치하여 건물사이를 오간다. 한 채의 건축에서 문은 통상 여닫이 식으로 정면 중심에 1짝 혹은 3짝, 일부 대형 궁전의 경우 5짝으로 설치된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주거건축에 사용되는 문은 크게 ‘판문(板門)’과 ‘격자문(格子門)’으로 나뉜다.



그림 4 판문 (좌: 소림사 초조암(송), 우:『청명상하도』성루(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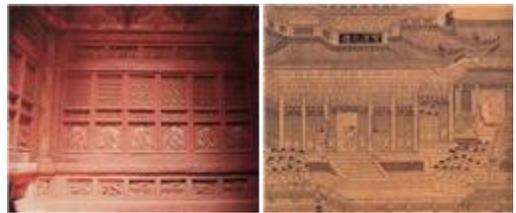
판문은 창살 없이 두꺼운 나무판을 이어 만든 여닫이문으로 주로 대문에 사용되나 방호성이 중시되는 주거건축의 출입문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석탑과 수당시대의 벽화에 묘사된 목조건축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축이 판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의 방호성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판문은 자극히 투박하여 장식은 오직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바깥면에 박아 넣는 ‘문정(門釘)’만이 유일하며 실내에서 보이는 안쪽면에는 그 어떤 장식도 없다. 즉 판문은 방호에는 유리하나 모양이 투박하여 실내장식에 불리하고 채광이 불가능하다

일본 건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건축에서는 판문 안쪽에 다시 격자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당나라 건축의 모습을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는 일본의 초기 목구조 건축들은 대부분 판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9세기에 창건된 일본의 동사(東寺) 금당(金堂)과 같은 일부 건축은 판문 안쪽에 격자문을 달아 주간에는 판문을 열어 채광을 한다. 그러나 중국 『영조법식』에는 이러한 이중문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현존하는 송대 목조 건축 중에서 창건 당시 문틀 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하남성 소림사 초조암(初祖庵), 산서성 야저(冶底) 대묘(岱廟) 천제전(天齊殿), 산서성 옥산(珥山) 청련사 석가전 등의 건축 역시 이중문

의 흔적이 없다.

격자문은 문틀 안쪽에 창살을 설치하고 안쪽에 투광성이 좋은 천을 댄 문이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격자문의 입면은 아래서부터 장수판(障水版), 요화판(腰花版), 창살로 구성된다.

산서성 후마(侯馬)에서 발굴된 금대 묘실은 조각한 전들로 주택의 입면을 정교하게 재현하여 놓았는데 그 가운데 격자문의 형식이 『영조법식』의 서술과 일치한다. 또한 원대 왕진봉(王振鵬)의 『용지경도도(龍池竟渡圖)』에 묘사된 송나라 황실의 보진루(寶津樓)에서도 3단 입면의 격자문이 보인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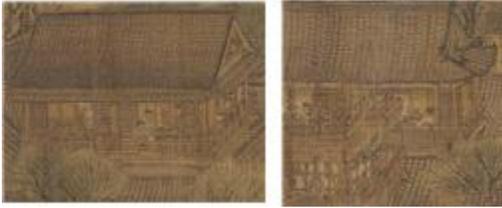
〈그림 5〉 격자문 (좌: 후마 지하묘실(금), 우:『용지경도도』(원))

하단의 장수판은 명칭 그대로 물을 막는 역할을 한다. 호우 시 비나 범람한 하천물이 실내로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것을 막기 위해 격자문이라 할지라도 하단은 목판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송나라 장택서(張擇瑞)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에 묘사된 주택의 대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범람한 황하의 물이 마당 안으로 들이치지 않게 대문에 사람 무릎 높이 정도로 높은 문턱을 목판으로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빼놓는 모습이 보인다.

중단의 요화판은 장수판과 유사한 얇은 목판인데 이는 문의 허리부분을 강조하는 장식요소로 생략하기도 한다.

상단의 창살은 작은 네모난 격자와 동그라미를 겹쳐서 패턴을 구성한다. 『영조법식』에는 정방형 격자의 ‘사직방격안(四直方格眼)’, 원형격자의 ‘사사구문격안(四斜稜文格眼)’, 정방형 격자 위에 원형격자를 덧댄 ‘사직구문상출중격안(四直稜文上出條重格眼)’, 원형격자 위에 45도 기울어진 사각형 격자를 덧댄 ‘사사구문상출조경중격안(四斜稜文上出條輕重格眼)’ 등 4종의 창살을 소개하고 있다. 『청명상하도』에 묘사된 송나라 수도 변량의 주택들의 격자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장 단순한 ‘사직

방격안을 사용하고 있다(그림6).



〈그림 6〉 사직방격안 격자문 (『청명상하도』(송))

창살의 안쪽 면에는 투광성이 좋은 천이나 종이를 붙였는데 방수를 위해 동유(桐油)등을 발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격자문의 문틀은 단면을 곡면으로 가공하고 포인트 라인을 넣어 장식하였는데, 『영조법식』에서는 문틀의 곡면을 ‘혼(混)’이라 하고 포인트 라인을 ‘선(線)’이라 하며, 혼과 선의 조합에 따라 9가지 문틀을 열거하였다.



〈그림 7〉 격자문 (좌: 송복사 미타전(금), 우: 각원사 문수전(요))

실내에서 보았을 때 문은 아름다운 비례로 입면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주며, 문틀과 문판 사이의 두께 차이에서 오는 층차감과 문틀과 창살의 풍부한 장식은 중요한 실내 입면을 장식하는 요소가 된다. 문틀과 창살의 다양한 패턴은 송나라 사람들이 격자문을 중요한 장식요소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산서성 삭주 송복사(崇福寺) 미타전과 하북성 래원의 각원사(閣院寺) 문수전에는 각각 금나라 때와 요나라 때의 것으로 판단되는 격자문이 남아있는데 송나라와 시기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그 격자는 『영조법식』에 소개된 4종류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으로 구성 되어있다(그림7).

문이 출입구의 가림판 이라면 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개구부의 가림판 이다. 송대 주거건축에서 창은 주로 건축정면의 문 양옆에 설치된다. 실내에서 보면 건물의 정면이 문과 창으로 조합된 거대한 채광면 이

자 정교하게 짜인 목부재들 사이에 기하학적인 패턴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찬 입면으로 인식된다. 채광과 장식 외에 창은 실내에서 외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좋은 경관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송대 회화들을 보면 2층 누각의 경우 경관 감상을 위해 측면이나 후면에도 창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 밖에 통풍을 위해 작은 쪽 창을 내기도 하는데 주로 건물의 측벽 높은 곳에 설치한다.

창문의 형식에는 크게 ‘직령창(直檣窗)’과 ‘격자창(格子窗)’이 있다. 직령창은 두꺼운 수직 창틀로 구성되어 있는 여닫을 수 없는 고정창이다. 길게 가공한 네모단면의 목재를 단면의 대각선방향으로 쪼개 만든 ‘파지령창(破子檣窗)’과 판재를 켜서 만든 ‘반령창(版檣窗)’의 2가지가 있다. 직령창은 방호성이 높아서 주로 편문과 함께 짝으로 쓰인다. 반면에 격자창은 장식과 채광을 강조한 창으로 주로 격자문과 함께 짝으로 쓰인다. 령창은 건축의 방호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었던 초기 창문형식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송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격자창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8).



〈그림 8〉 직령창 (『여효경도(女孝經圖)』(남송))

‘격자창’이라는 단어는 『영조법식』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난함구창(欄檻鉤窗)’과 ‘건내재간격자(殿內裁間格子)’의 작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난함구창은 창밖에 곡선의 난간을 붙여 놓은 것이다. 난간의 허리에 앉을 수 있게 판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 난간에 기대어 밖의 경관을 편하게 조망할 수 있다. 여기서 창문은 격자창을 사용한다. 『청명상하도』에 묘사된 집들은 대부분 직령창을 달았으나 일부 주주의 2층에 격자창을 달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는 송대 성시의 주거건축은 방호성을 중

시하여 경관조망을 위한 2층을 제외하고 1층에는 가급적 직령창을 달았음을 보여준다.

전내재간 격자는 궁전의 실내 간막이 벽에 격자창을 단 것이다. 송대 『갑구반차도』의 방앗간에는 실내 간막이 벽이 아닌 외벽에 격자창을 사용하고 있다(그림9).



〈그림 9〉 격자창 (『갑구반차도(開口盘车图)』(송))

이외에 『영조법식』에는 ‘섬뢰창(睇雷窗)’이라는 창문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판축 흙벽의 상단을 따라 번개문양의 창틀을 설치한 것으로 담장에 붙여 만든 회랑에 채광을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존하는 건축과 회화에서는 그 실례를 찾아 볼 수 없다.

2.3. 벽체

송대 고급 주거건축의 벽체는 일반적으로 흙으로 판축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실내 벽면장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판축흙벽은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단면에서 하단을 두껍게 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물매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벽면은 수직이 아니라 경사를 이루었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판축흙벽의 상단 폭은 하단 폭의 1/2이고 하단 폭은 벽 높이의 1/3이다. 즉 벽 높이가 12척이면 하단 폭은 4척이고 상단 폭은 2척으로 실내벽면은 약 15도 기울게 된다.

『영조법식』에는 구운 전돌로 벽을 쌓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벽체 하단 두께를 높이의 1/2로 하고 물매도 판축흙벽보다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건축의 벽체시공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송대 장인들이 전돌의 장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상하 벽돌 사이에 나타나는 단차를 회로 매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자처한 셈이 된다. 현대 고건축 학자인 반곡서(范谷喜)와 하건중(何建中)은 저서 『영조법식 해독』에서 이러한 전돌 축조법에 대해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두꺼운 벽은 당연히 건물에 쓰기는 매우 어렵고 오직 야외 담장이나 쓸 수 있다”⁶⁾라고 평가하였다. 송대에 구운 전돌은 성벽이나 건축 기단에 사용되었지만 아직 일반건축의 벽체재료로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벽체의 수직여부는 실내벽면의 장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명청대 주거건축은 전돌 축조기술의 발달로 벽면을 수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벽면에 서화작품을 거는 것이 가능했다. 청대 『한정우가거실부』에 의하면 “벽 사이에는 서화가 당연히 적을 수 없으나 너무 많이 붙여 여백을 남겨 놓지 않으면 이 역시 문인으로서 속된 욕구이다(壁間書畫自不可少, 然粘貼太繁, 不留餘地, 亦是文人俗志)”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바로 명청대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실내 벽을 서화작품으로 장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서화를 벽에 걸고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송대 문인들도 마찬가지였으나, 송대의 고급 주거건축은 벽면이 기울어 있어서 서화작품을 걸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현존하는 송대 회화작품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늦어도 송대부터 회화작품이 예술품 시장을 통해 매매되기 시작하였는데 보관과 휴대이동의 편리를 위해 그림을 말 수 있게 제작하였다. 말 수 있는 그림 중에서 가로로 긴 그림을 ‘권(卷)’이라 하고 세로로 긴 그림을 ‘축(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송대 회화작품들 중에는 ‘권’이 많고 ‘축’은 적는데 이는 실내에서 세로로 긴 그림을 걸어놓고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상에서 펼쳐놓고 감상할 수 있는 ‘권’형식의 그림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궁전이나 귀족의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주택은 대나무나 수수 등으로 외(檣)를 엮고 그 위에 흙을 바르거나 흙벽돌을 쌓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법식』에는 외를 엮고 흙을 바르는 공법이 직접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파자령창의 아래 벽체를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문구가 있는데, 이는 대나무 자체를 벽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벽체 중심에 대나무로 외를 엮고 안팎에 흙을 발라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회로 마감하는 공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영조법식』에는 진흙을 벗겨와 섞어 틀에 넣어 직육면체 형태로 만든 후 건조시켜 흙벽돌을 제작한 후 이들을 쌓아 벽체를 쌓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에 비해 더 두꺼운 벽체를 만들 수 있어서 거

6) 范谷喜, 何建中, 營造法式解讀, 東南大學出版社, 南京, 2005. 206쪽

울이 추운 강북지역에서 주택의 벽체 재료로 보편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공법은 판축흙벽에 비해 방호성과 단열능성이 떨어지지만 작업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현존하는 중국 강남강북의 전통민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벽체 형식이다. 『청명상하도』에 묘사된 송나라 수도 변량의 서민 주택과 점포들은 얇은 흙벽이나 조금 두꺼운 흙벽인데 이는 판축흙벽이 아니라 외를 엮어 흙을 바르거나 흙벽돌로 쌓은 것이다.

그 밖에 부분적으로 벽을 한 겹의 나무판으로 막기도 하였다. 『영조법식』의 파자령창 제작기법에는 창 아래 벽을 장수판(障水板) 즉 나무판으로 막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현존하는 송대 및 그 전후시기의 건축들 가운데 나무판 벽체의 실례는 없지만 송대 그림인 『갑구반차도』(그림9)와 원대 이몽근(李容瑾)의 『한원도』(漢苑圖)에 묘사된 건축에는 격자창 아래에 나무판으로 벽체를 삼고 있다. 또한 궁전 건축의 경면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격자문을 설치하고 그 위는 사각형의 나무판으로 막는데 이를 ‘조판벽(照版壁)’이라 부른다.

한편, 실내의 벽면 분절방식에 있어서도 송대의 판축흙벽은 명청대의 전돌벽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송대의 판축흙벽은 두꺼워서 기둥을 벽체 안에 완전히 감싸기 때문에 실내벽면은 분절되지 않고 연속된 평면이 된다. 반면에 명청대의 전돌벽은 멋을 내기 위해 벽체와 기둥이 만나는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따내서 벽체 안에 놓인 기둥의 실내쪽 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데 이들 수직선은 실내벽면을 몇 개로 평면으로 분절하게 된다. 판축흙벽의 연속된 실내벽면은 하나의 통일된 구도로 장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분절된 전돌 벽은 각 기둥사이의 벽면을 별도의 독립된 구도로 장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송대 및 전후시기의 사찰이나 도관의 대전들은 주로 벽면을 한쪽의 연속된 벽화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그림10), 명청대 건축들은 실내 벽면을 노출된 기둥을 경계선으로 삼아 몇 개의 독립된 주제로 꾸미는 경우가 많다.(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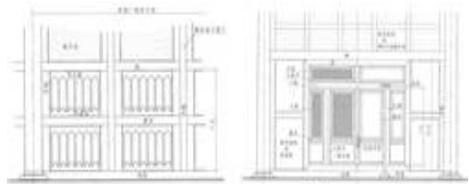


〈그림 10〉 산서 오대산 불광사 문수전 실내벽면(금) 〈그림 11〉 북경 천단 황건전 실내벽면(청)

2.4. 칸막이

칸막이는 건축의 실내공간을 분절하는 벽으로 건물의 외벽과 달리 틀과 판재를 조립하여 만든다. 비록 현존하는 송대 건축들에서 칸막이의 실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조법식』에는 ‘재간 반장(截間板)’, ‘재간 격자(截間格子)’ 그리고 ‘재간 병풍골(截間屏風骨)’ 등의 칸막이를 언급하고 있다. ‘재간’은 칸을 나눈다는 뜻으로 이들은 각각 칸막이 목판벽, 칸막이 격자문, 칸막이 병풍틀을 가리킨다.

반곡서와 하건중은 저서 『영조법식 해독』에서 이들 칸막이의 제작기법에 관한 고문헌을 해석해서 그림으로 복원하였는데 이를 보면 송대 건축의 칸막이는 실내공간을 벽이나 문으로 명확하게 분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12)



〈그림 12〉 재간반장과 재간격자

이는 명청대 주거건축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화조(花罩)’와는 확연히 다르다. 화조는 실내의 두 기둥 사이에 고정시키는 장식벽으로 실내공간을 분절하지만 막지는 않아 시각적으로는 인퓌를 통하게 한다.



〈그림 13〉 화조



〈그림 14〉 자금성 태극전의 화조(청)

화조는 실내장식의 구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명대 『원야』에 의하면 창틀 안에 들어오는 경관을 의도적인 주제와 구도로 꾸미는 기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창틀 안에 구성된 경관을 ‘광경(框景)’이라 한다. 화조는 실내에서 광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화조 안

쪽의 경관은 화조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의 주제와 구도로 통합된 한 쪽의 광경으로 꾸며진다. 화조의 출현은 주거건축의 실내설계가 하나의 전문적인 설계영역으로 독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송대 주거건축에서는 아직 발달된 실내설계 개념이 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병풍(屏風)은 문자 그대로 원래 실내에서 자리 뒤쪽으로부터 세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간이 막이를 가리킨다. 주택을 묘사한 송대 회화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작품에서 주택 대청에서 주인자리 뒤쪽에 병풍이 세워져 있는데, 이로부터 병풍은 실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송대 병풍의 종류는 크게 건축의 일부로서 제작된 고정식 병풍과 가구로서 제작된 이동식 병풍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의 일부로서 제작된 고정식 병풍으로는 『영조벽식』에서 소개된 ‘조벽 병풍(照壁屏風)’와 ‘사선 병풍(四扇屏風)’이 있다.



〈그림 14〉 3단 접이식 병풍 (『감서도』(남당))



〈그림 15〉 평면식 병풍(『인물도』(송))

‘조벽’이란 건축 평면의 중축선 위에 설치한 가림벽을 말하므로 ‘조벽 병풍’은 건축 평면의 중축선 상에 가림벽으로 설치한 병풍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조벽 병풍은 대청 가운데 주인자리의 뒤쪽에 위치한 두 기둥 사이에 얇은 나무로 격자 모양의 틀을

짜 넣은 후 틀 위에 종이나 천을 발라 병풍면을 만들고 그 위에 서화를 붙이거나 직접 그려서 완성한다. 병풍이 건축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 넘어질 염려가 없다. 두 기둥 사이에 병풍을 설치하면 앞뒤로 칸이 나뉘기 때문에 ‘재간 병풍(截間屏風)’이라고도 한다.

한편, 사선 병풍은 실내 칸막이에 여닫이문을 설치하면서 그 문을 병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총 4개의 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4선 병풍이라 부른다. 문들 사이에 격자들을 만들어 넣고 앞뒷면에 종이나 천을 바른 다음 그 표면에 서화를 그리거나 수를 놓아 장식한다. 명대에는 이러한 문을 ‘병문(屏門)’이라 불렀다. 명말 계성은 『원야』에서 “병문은 청당 가운데 병풍처럼 세워 있는데 평평한 것이니, 옛날에는 한 면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양면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다”라 하였는데 이는 오해로 송대에도 고급 병풍 문은 양면으로 제작하였다.

가구로 제작된 이동식 병풍은 크게 접이식과 평면식이 있다. 송대 회화에서 보이는 대다수의 병풍은 평면식이지만, 남당 왕제한(王齊翰)의 『감서도(勘書圖)』와 오대 주문야(周文矩)의 『중병회기도(重屏會棋圖)』에는 3단 접이식 병풍이 등장한다(그림 14). 이 병풍은 틀에 경첩을 달아 접을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야외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병풍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하단에 견고하고 무거운 받침대를 설치하였고 바닥으로부터 적당히 띄워 놓아 습기와 오염으로부터 병풍을 보호하였다.

병풍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송대 주거건축에서 병풍은 바람을 막아주고, 시선을 차단하며, 실내공간을 분리하고, 입면을 장식하며, 주인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송대 고급 주택은 앞에 손님을 맞이하는 청당 건물을 배치하고 뒤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침실을 별도의 건물로 배치한 다음 두 건물의 중심축에 랑(廊)을 만들어 연결하여 오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주택은 평면의 형태가 ‘공(工)자’를 닮아 옛 사람들은 ‘공자옥(工字屋)’이라 불렀다. 공자옥의 대청에서 주인의 자리 뒤에는 랑으로 통하는 개구부가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므로 병풍을 세워 바람을 막는다. 이 병풍은 동시에 침실 부분이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공간을 분리한다. 이러한 병풍은 송대 유송년(劉松年)의 『사경산수도(四景山水圖)·추(秋)』와 남송 『중흥서응도(中兴瑞应图)』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림16).



〈그림 16〉 공자옥과 병풍
(좌:『사경산수도』(송), 우:『중흥서응도』(남송))

송대 주거건축에서 병풍은 서화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전술한 바같이 송대 주거건축의 벽체는 그림을 걸기에 부적합하였기 때문에 주로 병풍의 입면에 서화를 그리거나 표구하여 감상했다. 병풍의 앞면과 뒷면 외에도 병풍의 틀에 그림을 걸기도 하였는데, 송대 작자미상의 그림인 『인물도(人物圖)』에는 그림을 병풍의 뒷면에 건 모습이 등장한다(그림15).

또한 병풍은 실용적인 기능 외에 주인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송대 회화를 보면 대청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 정원에서도 중심인물의 뒤에는 대부분 병풍이 세워져 있는데, 병풍 앞의 인물이 바로 그림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2.5. 가구

중원지역의 거주방식은 원래 좌식생활이었다가 당나라 때부터 점차 입식생활로 변하였다. 입식생활로의 변화는 다양한 가구의 발생을 촉진하였으며 송대에는 특히 문인문화의 흥성과 더불어 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가구가 발달하였다. 가구 공예는 건축의 소목작과 유사한 계통으로, 『영조법식』의 소목작에 제도에서 보이는 목공예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송대 가구공예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대 주거건축에 쓰였던 가구의 종류와 배치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자료는 회화작품들이다.

오대 구굉중(顧閔中)의 『한연재 야연도(韓熙載夜宴圖)』는 당시 귀족주택의 실내 경관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첫 번째 장면은 한연재가 친우들을 초청하여 침실에서 모여 비파연주를 감상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장면은 같은 침실에서 가무를 감상하는 모습이다. 이 침실에는 침상(상(床)), 평상(탁(榻)), 정사각형 탁재탁(桌), 긴 탁재안(案), 등받이 의자(의(椅)), 등받이 없는 낮은 의자(등(凳)), 거울걸이

[경가(鏡架), 옷걸이(의가(衣架)), 병풍 등의 다양한 가구가 등장한다. 침상은 현대의 캐노피 침대와 유사한데, 삼면에 나무판으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갖고 있으며 개구부에는 커튼을 달았다. 평상은 현대의 거실 소파와 유사한 용도로서 여러 명이 동시에 올라가 앉을 수 있다. 등받이 의자는 팔걸이가 없고 천을 씌웠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는 비파를 연주하는 여인이 앉아 있다. 또한 탁자에는 음식과 술이 차려 있다.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비교해 보면 실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성격에 맞춰 평상과 병풍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 시켰음을 발견하게 된다(그림17).



〈그림 17〉 귀족주택 실내 (『한연재 야연도(오대)』)



〈그림 17〉 평상
(『중병회기도』(오대))

〈그림 18〉 팔걸이 의자
(『오음청하도』(남송))

평상(榻)은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전환되면서 출현한 과도기적 가구형식으로 송대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오대 주문구의 『중병회기도』를 보면 병풍 앞에 크기와 용도가 다른 3종류의 평상이 펼쳐있다. 또 그림 속의 병풍에는 복장으로 보았을 때

당나라 인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사한 형태로 앉아 있는데 이들 역시 병풍 앞에 두 개의 평상을 펼쳐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 개인별로 독립된 의자에 앉아 탁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자리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송시기의 『오음청하도(梧蔭清暇圖)』를 보면 탁자

를 중심으로 팔걸이가 달린 긴 의자, 팔걸이 있는 1인용 의자, 팔걸이 없는 1인용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탁자 중심의 배치와 팔걸이의 등장은 입식생활이 거의 정착된 상황을 보여준다. 기타 수납용 가구로는 상자 안에 물건을 보관하는 상함(箱奩)과 주방에서 재료를 보관하는 주궤(櫥櫃) 등이 있었다.

5.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송대 주거건축은 대량식 목구조를 기반으로 실내공간을 꾸미는 기술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였다. 실내설계의 큰 방향은 건물의 단면구조 유형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대형 주거건축의 경우 전당식 구조를 사용하여 처마쪽 기둥과 실내 기둥을 모두 같은 높이로 하고 기둥 머리위에 공포를 조립해 올린 다음 그 위에 천정 가리개인 평암이나 평기를 설치하였으며, 황제의 경우는 평기 가운데에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조정을 설치하였다. 즉 전당식 구조의 실내는 천정고가 높고 기둥 간격이 넓으며 화려한 공포와 천정 가리개로 멋을 내었다. 반면, 소형 주거건축은 청당식 구조를 사용하여 처마쪽 기둥보다 실내 기둥을 높게 만들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짧은 보를 걸쳐 구조체를 만들었다. ‘절상명조’기법을 사용하여 천정 가리개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의 구조를 드러내 보이면서 보를 곡선으로 가공하고 보와 보 사이에 장식된 공포나 대공 등을 설치하여 구조 자체를 실내장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그밖에 주거건축의 입면은 문창, 벽체, 칸막이로 구성하였는데 문창은 방호성을 중시하는 판문과 직령창에서 장식성을 중시하는 격자문과 격자창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격자문과 격자창의 사용은 실내의 채광과 통풍 효과를 개선시키고 실내에 아름다운 장식미를 부여하였다.

벽체는 판축흙벽, 흙벽돌 벽, 외를 짠 후 흙을 바라는 벽 등이 주로 쓰이고 구운 전돌은 아직 건축의 벽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작된 실내 벽면은 기울어져 있어서 서화를 걸기 부적합하였고, 벽체 안의 기둥은 실내쪽으로 노출되지 않아 실내벽면은 연속된 하나의 평면이 되었는데 여기에 주로 벽화를 그렸다.

칸막이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나무판과 격자문을 달아 실내를 나눴으며, 장식이 필요한 입면은 고정식 병풍이나 이동식 병풍을 설치하고 그 입면에 서화를 그

렸다. 병풍은 서화를 설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식입면으로 주거건축 대청의 가운데에 설치되었으며, 서화를 더 설치하고 싶은 경우는 칸막이 문을 병풍으로 제작하였다.

가구는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상[榻]이 발달하였다. 평상은 실내에서 병풍 앞에 놓여지며 주인은 올라가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였다. 그 밖에 다리가 높은 의자와 탁자가 점차 발달하면서 탁자를 중심으로 개인별로 의자를 배치하는 입식거실이 등장했다.

참고문헌

1. 梁思成, 梁思成全集, 第七卷, 中国建筑工业出版社, 北京, 2001
2. 范谷喜, 何建中, 营造法式解读, 东南大学出版社, 南京, 2005
3. 刘雨婷, 中国历代建筑典章制度, 同济大学出版社, 上海, 2010
4. 譚剛毅, 两宋时期的中国民居与居住形态, 东南大学出版社, 南京, 2008
5. 计成著, 陈值注译, 园冶注释, 中国建筑工业出版社, 北京, 1988
6. 李渔, 闲情偶寄,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2005
7. 邵晓峰, 中国宋代傢具, 东南大学出版社, 南京, 2010
8.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진성각, 서울, 2010